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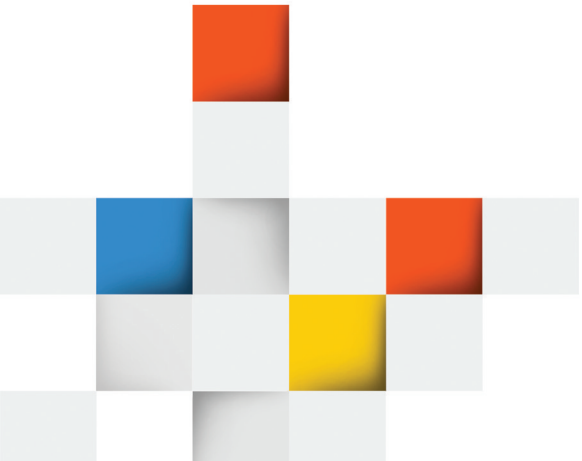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시대별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 1960–2023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60년대에 한국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었다. 경제 규모는 필리핀, 콜롬비아보다도 작았고, 1인당 소득은 이란,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보다 낮았다.
-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위기를 훌륭히 극복했다. 경제 규모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추월하고 1인당 소득에서는 터키, 쿠바를 추월했다.
- 1980년대에도 한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겪었다. 1980년 −1.6%라는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반등해 1인당 소득에서 브라질, 멕시코 같은 중남미 대국들을 따라잡았다.
- 1990년대에 한국은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외환위기로 큰 충격을 겪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교훈 삼아 제도를 정비했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 2000년대에 한국은 멕시코를 추월하고 스페인에 근접하는 경제 규모를 달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중 드물게 양의 성장을 지속하여 경제의 강건함을 입증했다.
- 2010년 이후 한국은 유럽 재정위기,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큰 파고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며 규모에서 스페인을 추월했고, 지금은 캐나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인당 소득에서도 일본과 스페인을 넘어섰다.

경제 분야의 주요 동향에서는 한국전쟁이 휴전한 해인 1953년 이후부터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하여 한국 경제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한국은 국가의 경제 규모와 개인들의 경제적 수준, 산업구조와 무역 규모 및 공공분야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의 지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 성취를 체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글은 주요 동향에서 다룬 지난 80여 년간의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국제 비교를 통해 사실감 있게 전달하려고 한다. 1960년부터 10년 단위로 세 가지 경제지표를 살펴본다. 경제의 총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해당 시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연간 GDP 성장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DP이다. 각각의 지표에서 해당 시점에 한국과 비교할 만한 국가들을 제시하여 시대별로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가늠한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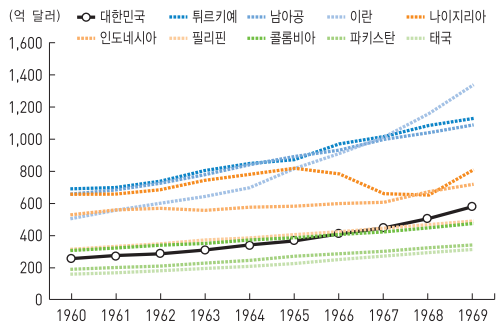
1960년대

1960년대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Cold War) 체제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고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하던 시기다. 자유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

1) 제시하는 경제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추상적인 수준이므로, 해석 시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삶의 수준은 1인당 GDP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 불평등 지표, 보건 및 교육제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로 독일, 일본 세 국가를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이 이뤄지며 세계 경제가 호황이던 시기였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호황의 혜택을 초기 산업화에 활용했는데,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미국 등 우방의 원조와 기술 지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 덕분에 한국 경제는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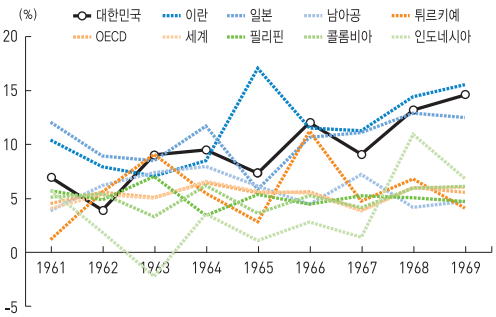
[그림 xii-1]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960-1969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2)]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을 보면 1960년대에 한국의 GDP는 절대 규모에서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각 대륙의 국가들과 비견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었다. 특히 1960년에 신생 독립한 나이지리아나, 1961년 영연방을 탈퇴한 남아공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960년에 한국의 GDP는 필리핀, 콜롬비아보다도 낮았지만,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이들을 추월했다.

[그림 xii-2] 한국 및 비교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률, 1961-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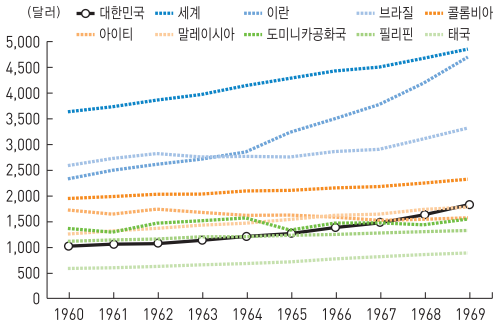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2]를 보면 한국은 세계 평균이나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특히 비슷한 GDP 규모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지속적이면서 높은 수치를 보여, 경제규모에서 이들 경쟁국을 곧 추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xii-3]을 보면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028달러로 세계 평균인 3,656달러의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아이티 같이 현재는 한국이 월등히 앞서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아, 당시 국민의 어려운 생활 수준을 짐작게 한다. 이란은 2,345달러로 당시의 한국에 비해 약 2.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2) GDP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시장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국제비교에서는 미 달러화로 화폐를 통일한다. 그리고 다년간의 경제지표 비교에서 매년 물가 수준의 변화가 시장가격으로 측정되는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의 화폐가치를 고정하는 불변가격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1960년 한국의 GDP는 1960년 한국 원화가 아닌 2015년의 미국 달러로 측정한 값이다.

[그림 xii-3] 한국 및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1960-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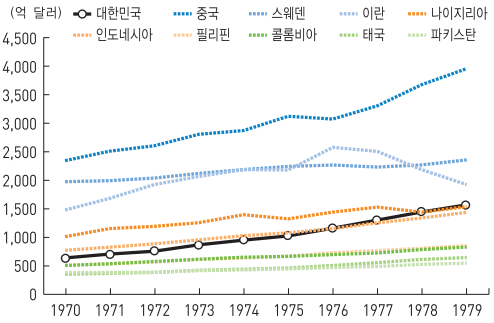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3]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1970년대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1973년, 1979년)으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4]에 시달린 시기였다. 동시에 미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1971년)와 베트남전 종전(1975년) 등 국제질서의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러한 여파 속에서도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네 마리의 용'[5] 가운데 하나로 불리게 되었다.

[그림 xii-4]을 보면 한국은 1976년에 인도네시아를 추월하며 나이지리아와 대등한 경제 규모로 성장했다. 같은 시기 중국도 경제성장의 초입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급성장하던 이란이 1977년부터 경제 규모가 하락하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시기 시작된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게 한다.

[그림 xii-4]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970-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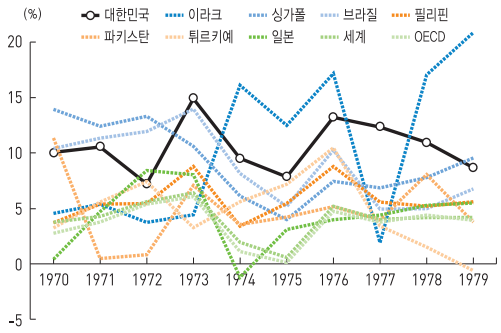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1970년대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고도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림 xii-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경제의 충격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197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0.56%로 극히 저조한 반면, 석유 수출국인 이라크는 약 12.5%를 기록하고, 1979년에는 약 20.8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성장 대열에 있던 싱가포르, 일본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뛰어난 성취를 나타냈다.

3) 앞의 주요 동향에서는 GNI로 해당 수치를 사용했다. 그러나 개도국을 포함하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GDP로 대체한다.
4)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고통의 상황을 말한다.
5)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네 나라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1970~198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홍콩은 현재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세계은행 자료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림 xii-5] 한국 및 비교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률, 1970-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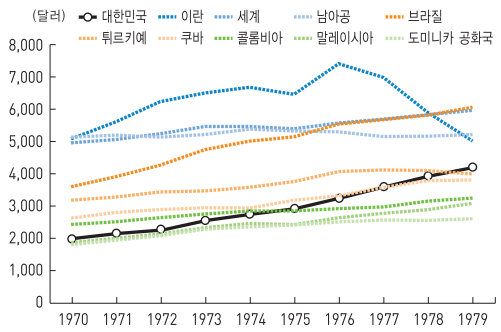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6]을 보면 1970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1,977달러로 세계 평균인 4,960달러의 약 40% 수준이었지만, 1979년에는 약 70%로 상승해 격차를 줄였다. 이란은 1970년대 전체를 통틀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불안의 영향으로 경제가 후퇴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은 1979년이 1970년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터키나 쿠바는 1970년에는 한국보다 높은 1인당 GDP 수준을 누렸으나 1970년대 후반에 모두 한국에 추월당한다.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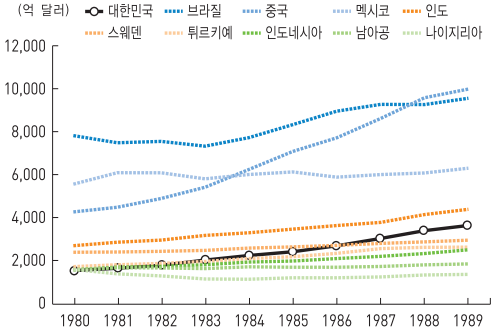
1980년대에 세계 경제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맞이하였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 달러의 주요국 화폐에 대한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고질적인 대 선진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 일본 엔화가 평가절상되어 부동산·주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버블경제'에 진입한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한국에게 대체로 호재로 작용했고, 꾸준한 GDP 상승의 발판이 되었다.

[그림 xii-6] 한국 및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1970-1979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7]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980-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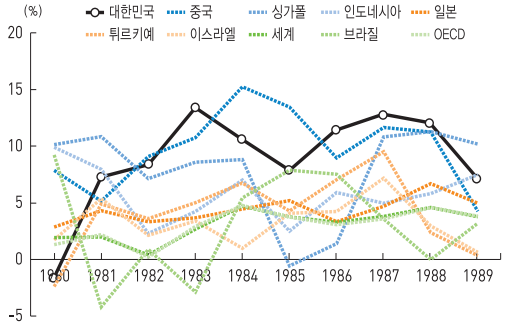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7]을 보면 한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1980년부터 나이지리아를 추월하면서, 브라질, 중국, 멕시코, 인도 같은 국가들을 바라보게 된다. 특히 중국·인도는 이 시기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xii-8]을 보면 1982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35%로 경기침체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은 1980년에 -1.6% 성장을 보이는데 외부요인에 더해 국내의 정치 불안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하여 한국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일본은 한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4%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미 경제대국이었음을 고려하면 높은 성장세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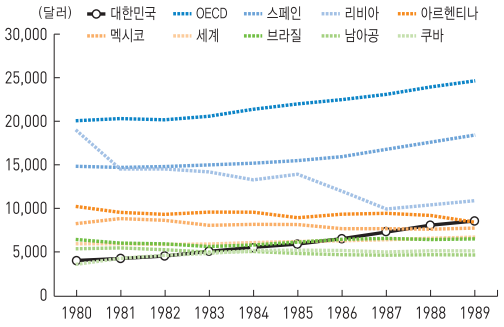
[그림 xii-8] 한국 및 비교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률, 1980-1989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9]을 보면 1986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560달러로, 이때 처음으로 세계 평균을 넘어섰다. 또한 1980년대에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국가들을 추월하는 데 성공한다. 리비아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지만 두드러진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가 하락과 정치적 불안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xii-9] 한국 및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1980-1989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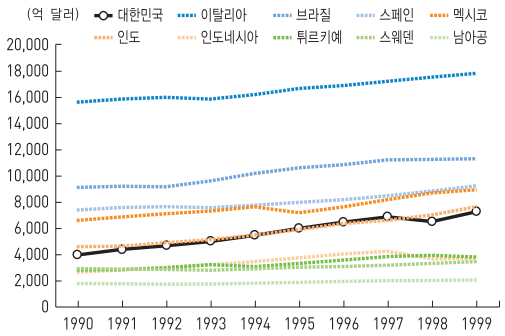
1991년에 소련(Soviet Union)이 해체되며 냉전시대가 막을 내렸다. 동시에 세계화(Globalization), 자유무역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 역시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화'라는 기치하에 무역, 금융시장의 개방을 추진했다. 1996년에 한국은 선진국 집단인 OECD에 가입하며 꾸준한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전이된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6]는

6) IMF 사태라고도 알려져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다. 한국의 외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한 사건이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그림 xii-10]을 보면 한국은 남미의 대국 브라질, 서유럽의 선진국인 스페인, 북미의 멕시코, 그리고 인구대국인 인도 등과 비교 가능한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8년 GDP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경제 규모를 감소시킬 정도로 큰 충격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xii-10]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990-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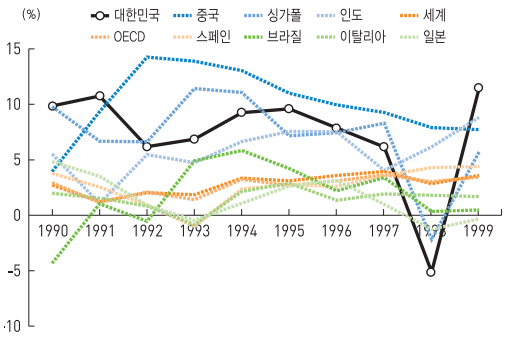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1]을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1998년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타 국가는 눈에 띄는 하락은 없어서, 우리 사회에는 가장 충격적인 위기가 전 세계의 시각에서는 통상적인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1993년에 -0.46%를 나타내며 성장률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장기 저성장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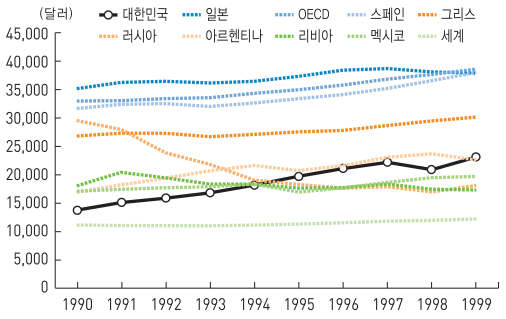
[그림 xii-12]를 보면 1999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3,218달러로 OECD의 평균인 38,723달러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그림 xii-11] 한국 및 비교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률, 1990-1999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2] 한국 및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1990-1999



주: 1) 2021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PPP) 기준.[7]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7)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동일한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보정해주는 지표이다. 국가 간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는 구매력 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나 해당 수치는 국제적으로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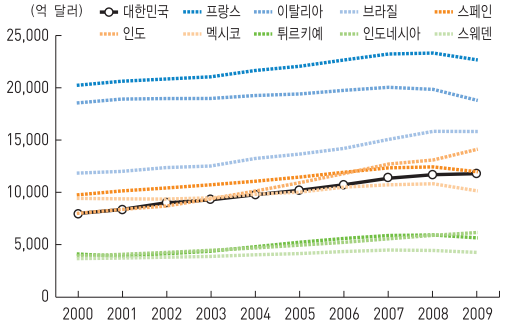
이후 체제 불안 탓에 국민의 삶의 수준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2000년대

2000년대는 세계 경제에서 인터넷과 금융혁신으로 국가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대였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고,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자산 거품이 여러 나라에서 형성되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 수혜국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지구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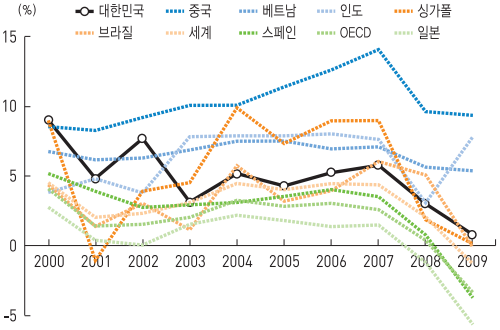
[그림 xii-13]을 보면 이 시기에 한국은 과거의 경제적 충격을 훌륭히 극복하고 멕시코를 추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09년에 이르러 스페인에 근접하는 경제 규모를 달성하여 전통적인 북미·서유럽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습이다.

[그림 xii-13]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2000-2009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4] 한국 및 비교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률,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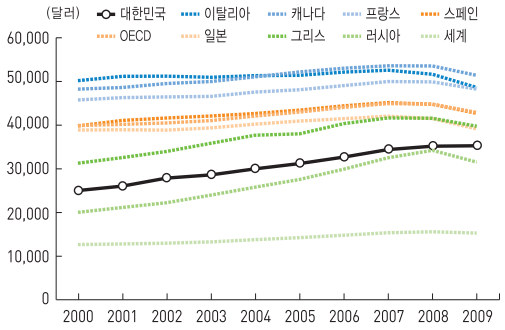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4]는 한국 및 비교 국가들의 연간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8~2009년의 추이를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특히, 세계 평균과 OECD 국가 평균이 음의 성장률을 보여 당시 경제위기의 충격을 실감하게 한다. 그 가운데 한국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위기를 잘 해쳐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같은 시기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위기 상황에 처한 선진국 경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림 xii-15]를 보면, 2009년에 이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5,391달러로 OECD의 평균

인 43,067달러의 약 82%에 근접한다. 일본은 2009년의 수치가 39,280달러로 2003년의 39,502달러보다 오히려 낮아져 국민의 삶의 수준이 후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추월하였다.

[그림 xii-15] 한국 및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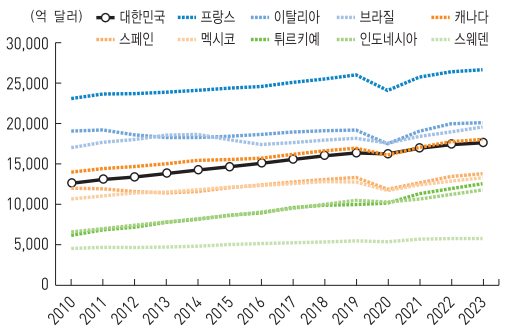
주: 1) 2021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PPP)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2010~2023년

2010년대에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인해 저성장세로 출발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2010~2012년)와 BRICs의 성장세 둔화 등 국제경제 여건은 좋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며 세계 경제는 큰 후퇴를 겪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 공급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긴축재정으로 이어지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림 xii-16]은 2010년 이후 한국과 비교 국가의 GDP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고, 특히 2020년의 위기에 어떤 국가보다 잘 대처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서유럽 국가인 스페인을 추월하고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림 xii-16]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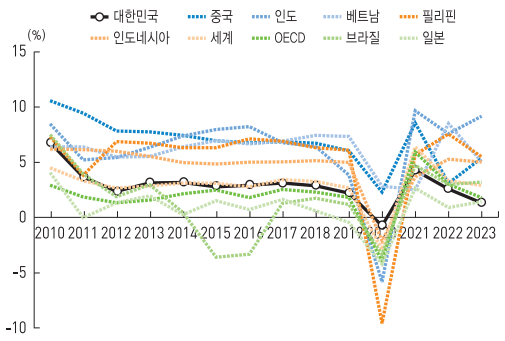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7]을 보면 이 시기 한국의 성장률 평균은 2.92%로 세계 평균 2.99%보다 낮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신흥개도국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의 위기에서 중국,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타 국가보다 높은 점이 흥미롭다. 일본은 비교 국가들 가운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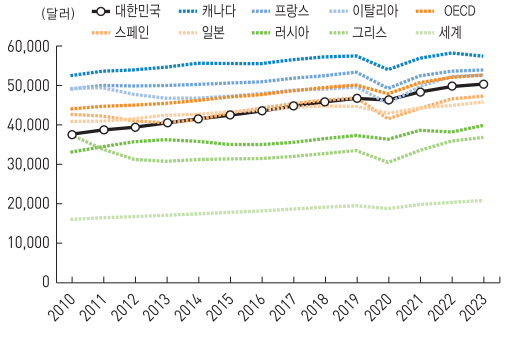
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소위 '잃어버린 30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i-17] 한국 및 비교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2010-2023



주: 1) 201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8] 한국 및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2010-2023



주: 1) 2021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PPP)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연도.

[그림 xii-18]은 2010년 이후 한국과 비교 국가의 1인당 GDP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2010년 37,611달러에서 줄곧 상승해 2023년에는 50,414달러에 도달하면서 OECD 평균인 52,704달러의 약 96%에 근접하였다. 또한, 2020년의 위기 이전에 스페인과 일본을 추월하여 경제 규모와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국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한 그리스는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지가 되면서 1인당 GDP가 급락하여 2023년에는 36,855달러로 한국의 약 7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맺음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국민 생활 수준에서도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었다. 가난과 위기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경험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한국의 비교 대상이던 여러 국가들의 모습이다. 한때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필리핀, 이란,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정치적 불안, 제도 개혁 실패, 자원 의존 구조의 한계 등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 전체가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의 길을 걸었다.

이 대조적인 궤적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한국 경제의 성취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스스로 단련하고 미래를 준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은 인구

구조 및 세계 질서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정이 보여주듯,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더 큰 도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